# • 1교시 언어 영역 •

| | | | | | | | | | | | | | | | |
|---|---|---|---|---|---|---|---|---|---|---|---|---|---|---|---|
| 1 | ⑤ | 2 | ③ | 3 | ④ | 4 | ⑤ | 5 | ⑤ | 6 | ④ | 7 | ② | 8 | ⑤ |
| 9 | ④ | 10 | ③ | 11 | ④ | 12 | ④ | 13 | ② | 14 | ⑤ | 15 | ② | 16 | ① |
| 17 | ③ | 18 | ② | 19 | ② | 20 | ④ | 21 | ① | 22 | ③ | 23 | ① | 24 | ① |
| 25 | ④ | 26 | ③ | 27 | ③ | 28 | ① | 29 | ② | 30 | ③ | 31 | ③ | 32 | ② |
| 33 | ② | 34 | ⑤ | 35 | ⑤ | 36 | ② | 37 | ⑤ | 38 | ④ | 39 | ① | 40 | ④ |
| 41 | ③ | 42 | ① | 43 | ① | 44 | ④ | 45 | ③ | 46 | ④ | 47 | ② | 48 | ③ |
| 49 | ① | 50 | ④ | 51 | ⑤ | 52 | ① | 53 | ⑤ | 54 | ② | 55 | ⑤ | 56 | ③ |
| 57 | ② | 58 | ① | 59 | ⑤ | 60 | ② | | | | | | | | |

## - 듣 기 -

### 1.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듣고 실례에 적용하기

여러분, '환경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심리학이란 환경이 개인 또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개인 공간과 좌석 배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은 좌석 배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드는 형태인 사회 구심적 배치와, 다른 하나는 점점 멀어지는 형태인 사회 원심적 배치입니다. 사회 구심적 배치는 눈맞춤을 자주하게 만들어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에 비해 사회 원심적 배치는 사람들과의 눈맞춤이 어렵고, 대화 나누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좌석의 배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대화를 할 때는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거나, 서로 맞은편에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맞대면 배치가 좋습니다. 한편, 교실 책상과 같이 서로 양옆으로 나란히 앉는 배치는 주로 협동하면서 대화할 상황일 때 효과적입니다. 이에 비해 경쟁하는 짝들은 마주 보고 앉는 맞대면 배치를 선호하기도 하며, 아예 대인 거리를 멀리 두는 배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눈길을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어긋나게 앉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사회 원심적 배치가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석 배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한 배치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겠지요.

**[해설]** 강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정보는 상황에 맞는 좌석 배치의 종류이다. 그림에서 평범한 대화를 나타내는 그림은 (가)와 (나)이며, 협동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라)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좌석 배치는 (나)와 (마)이다. (다)는 서로 다른 일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진행자 : 요리에서 조미료는 필수적인데요. 대부분 주부들은 조미료를 눈대중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조미료 사용에도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다면서요?

출연자 : 네, 그렇습니다. 요리할 때 조미료의 양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된장과 같은 조미료를 사용할 때, 일단 냄비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하나요?

출연자 : 우선 설탕과 소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둘은 배어드는 작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물 속에 들어가면, 설탕은 설탕 분자로, 소금은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으로 나뉘는데 소금 알갱이가 설탕에 비해 더 작으므로 재료에 빨리 배어들게 되지요. 게다가 소금은 재료를 꽉 조여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재료에 소금이 첨가된 뒤에는 설탕이 배어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설탕을 넣어도 좀처럼 단맛이 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염분이 들어 있는 간장도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설탕보다 나중에 넣어야만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식초나 된장은 언제 넣어야 하나요?

출연자 : 식초는 뚜껑을 열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무 일찍 넣으면 조리열 때문에 그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된장 역시 열을 가하면 감칠맛을 잃기 쉬운 조미료입니다. 그러니 식초와 된장은 다른 조미료보다 상대적으로 뒤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식초와 된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과 소금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미료 본래의 맛과 향을 잘 살릴 수 있어요.

진행자 : 네, 앞으로는 조미료를 사용할 때도 조미료 성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해설]** 출연자가 조미료 첨가 순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설탕과 소금의 순서는 꼭 지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즉, 소금 알갱이가 설탕 알갱이보다 분자의 규모가 작고, 재료를 조여 주는 기능이 있으므로 국물에 첨가할 때는 설탕을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장의 경우도 염분이 들어 있으므로 설탕보다는 늦게 넣는 것이 좋다. 나머지 식초나 된장의 경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중요한 것은 설탕보다 소금이나 간장을 뒤에 넣어야 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 3. [출제의도] 정보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하루는 히말라야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주인은 양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양을 풀밭에 놓아 주며 풀을 뜯어 먹게 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본 뒤에야 흥정을 끝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이 비쩍 마른 양보다 싼 값에 팔려 갔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양을 팔러 온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의 주인은 무게나 겉모습이 아니라 양의 평소 버릇을 보고 값을 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오르며 뜯는 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는 양보다 비쌉니다."

외국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양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온통 벼랑뿐인 히말라야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어 먹는 편한 습성에 길들여지면, 풀이 없어도 위로 올라갈 줄 몰라 굶어 죽기 때문이지요."

**[해설]** 들려 준 이야기의 요지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다. 즉, 양의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는 양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어려움을 견디며 척박한 땅에서 풀을 찾아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는 양은 늘 편한 습성에 길들여져 있으므로 가격이 싸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④가 정답이다. ①은 '끈기가 부족하다'를 1차적으로 유추하기가 어렵다.

### 4. [출제의도]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여학생 : 야, 인류 과학의 발전이 정말 눈부셔.
남학생 : 아니, 무슨 이야긴데?
여학생 : 응, 오늘 신문에 NASA의 '딥임팩트호'가 성공시킨 혜성 충돌 실험을 특집으로 다룬 기사를 읽고 너무 놀라워서 하는 말이야.
남학생 : 아, 그건 나도 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굉장하더라. 지구와 충돌하는 혜성을 핵탄두로 폭파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가 떠올랐어. 근데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혜성을 인간이 만든 충돌체로 명중시킨 것이라며?
여학생 : 그래, 딥임팩트호가 지구로부터 무려 4억 3,100만km를 항해한 다음 충돌체를 발사한거야. 그 충돌체가 초당 10km의 고속으로 86만 4,000km를 날아가서 지름 6km의 템플1 혜성을 정확하게 맞췄다니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니?
남학생 :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니? 난 그냥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학생 : 얘는, 어떻게 그게 보통 일이니? 과학자들에 의하면 초속 10km를 초속 1mm의 오차 내에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없으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날아가는 총알을 총으로 쏴서 맞힌 셈이라니까.
남학생 : 듣고 보니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런 실험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누굴까?
여학생 : 응, 그건 앨런 델러미어와 마이크 벨튼이라는 과학자야. 그들은 헬리 혜성을 연구하다가 헬리 혜성 표면이 숯덩이처럼 까만 이유가 궁금해졌대. 그래서 직접 혜성을 충돌시켜 표면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NASA에 제안했대.
남학생 : 아, 그렇구나. 야, 너 제법이다. 근데 정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있는 거야?
여학생 : 인류는 오래 전부터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알려진 혜성 수만도 1,600개가 넘어. 그 중 궤도가 미리 계산된 혜성은 600개 정도인데, 나머지는 아직 그 궤도를 모른다고 봐야겠지.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름 100m 정도 되는 작은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대용량 핵폭탄과 맞먹는 위력을 지니지만, 100년 안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1% 정도라고 하니 실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지.

**[해설]** ①은 지구로부터 무려 4억 3,100만km를 항해한 다음 충돌체가 발사되어 다시 86만 4000km를 날아가서 지름 6km의 템플1 혜성을 맞혔다는 여학생 대사에서, ②는 궤도가 규명된 혜성의 수가 600개나 된다고 말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③은 여학생의 마지막 대사에서, ④는 '앨런 델러미어'와 '마이크 벨튼'이라는 과학자가 혜성 충돌 아이디어를 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혜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의 파괴력은 언급했으나 딥임팩트호 충돌체의 파괴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5. **[출제의도] 말하기의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

글을 모르는 아동이 처음으로 글읽기를 배우는 것이 글 깨치기입니다. 글을 깨치게 되면 그때부터 아동은 음성 언어 세계에서 문자 언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글 깨치기는 아동 발달에도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 한글은 이런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문자보다 글 깨치기가 쉽습니다. 즉 한글은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한글의 각 글자는 하나의 발음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문자 표기로서의 '아'는 '아'라는 하나의 소리와 일치하여 대응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문자 'a'가 '에이, 아, 애, 어'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리하여 문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경우에 당연히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한글의 표기 단위는 음절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라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세 글자로 이루어짐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청각적으로도 세 마디임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영어는 단순히 알파벳을 나열한 형태이므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마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자의 역사를 통틀어 한글과 같이 우수한 문자는 없다."라는 래리 레디어드의 극찬과 "한글은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의 하나"라는 제프리 샘슨의 찬사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낮은 이유도 이런 한글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 표기가 일대 일로 대응되며 음절 단위로 표기됨으로써 누구나 시각적, 청각적으로 쉽게 문자나 단어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글의 언어학적 우수성과 아울러 교육적인 가치까지도 잘 보여주는 독특한 장점입니다.

**[해설]** 심포지엄 발표 내용은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주장을 먼저 제시한 후,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소리가 대응된다는 점과 음절 모아 적기의 특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의 한글 우수성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고 있으며, '아' 음에 대한 한글과 영어에서의 대비 사례나 '비행기' 음절 모아 적기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표기 단위상의 특징을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념을 지적하고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보기〉는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 적지 않고 횡으로 자음과 모음을 풀어 표기한 경우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말한 음절 단위로 모아 적을 때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의 논지대로라면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발음을 들을 때 청각적으로도 마디 인식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음절 단위로 적을 때나 횡으로 풀어 적을 때나 하나의 소리에 대응되는 문자는 변동이 없다. 즉, '아' 소리에 대응되는 문자는 'ㅏ'인 것이다. 그리고 음절로 쓸 때보다 발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발표자의 주장대로라면 시각적, 청각적으로 음절 마디 인식이 쉽지 않아 오히려 발음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음절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한글을 배우기가 쉽다고 했으므로 풀어 쓰게 되면 글자 깨치기가 더 어렵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답은 ④이다.

**- 쓰 기 -**

7.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보고 주제 연상하기**

**[해설]** 주어진 만화는, 금이 가 쓸모 없을 것 같은 항아리의 깨진 틈 사이로 흘러 나온 물로 인해 꽃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주인이 일깨워 줌으로써 보잘것 없는 항아리도 쓸모 있는 가치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①은 항아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와 주인이 깨우쳐 주는 가치는 상대적이므로 가치의 상대성을 유추할 수 있고, ③은 항아리의 단점으로 인해 꽃을 키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주제이며, ④, ⑤는 보잘것 없는 항아리도 쓸모와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는 문장이므로 연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지나친 욕심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연상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8. **[출제의도] 사고 과정에 따라 구상하기**

**[해설]**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주장-근거1, 2-반론-근거1, 2-절충안' 의 단계로 글감 및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①, ②는 '정도를 넘어선 댓글'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며, ③은 주장에 대한 반대적 관

점이므로 반론으로 적절하고, ④는 '댓글 규제'가 자유롭고 건전한 의견 표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역시 반론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 그러나 ⑤는 인터넷 댓글 규제가 세대 간의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인 '개인의 자유로운 댓글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근거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9. [출제의도] 개요 작성 후, 수정하기**

**[해설]**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개요 수정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은 추상적 주제를 구체적 문장으로 재진술한 경우이므로 주제문으로 타당하다. ㉡도 개요의 내용을 고려할 때, '1. 문제 실태'의 '가. 나' 항목은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방안이다. ㉢은 전체 주제와 연관성이 결여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도 앞의 '2-다'와 비교해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에 삽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라. 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강화'를 '3. 대책'으로 이동한다면 봉사활동 본래의 목적보다는 점수 획득이나 대학 진학시의 가산점과 같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논지 전개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는 항목이 대책으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④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①은 주어진 조건 중에서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았고, ②는 계절감과 비유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④, ⑤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③에는 '여름밤'의 배경을 통한 계절감도 드러나 있고, 누님의 그리운 모습(미소)이 '손톱 끝 꽃물처럼'이라는 비유로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시조의 주제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은 ③이다.

**11. [출제의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연결하기**

**[해설]**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①은 중심 문장의 '지문, 대사, 해설' 중 '지문, 대사'만 뒷받침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뒷받침 문장이 되지 못했으며, ②는 주제문이 '저출산 문제 대책',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으로 이중 제시되어 문장 간의 긴밀성이 떨어지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③은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으로 '한편~아주 다르다'가 주제문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절치 않다. ⑤는 주제문에서는 '역사와 소설의 공통점'을 다루었으나, 뒷받침 문장에서는 '차이점'을 제시하여 뒷받침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으로서 충실히 제시된 ④가 정답이다.

**12. [출제의도] 고쳐 쓰기**

**[해설]** ㉠은 '그 이유는'이라는 주어와 호응하기 위해서는 ①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은 '~소개시켜 주다'는 '소개해 주다'가 바른 표현이다. ㉢은 앞 내용에 이어 펜팔을 한 또 한명의 친구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그리고'가 맞다. ㉣은 '~지게 되다'는 이중 피동이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④는 문맥상 과거 회상의 내용이므로 '세던지'가 맞다. 정답은 ④이다.

**13. [출제의도] 어법상 오류 찾기**

**[해설]** '만큼'과 '대로'는 조사와 의존 명사로 각각 쓰이는데,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 한다. 우리말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며(한글 맞춤법 제41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제42항)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며, '공부한 만큼'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나대로'의 '대로' 역시 조사이며, '아는 대로'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③의 '꽃은 꽃대로'에서 '대로'도 '꽃'이라는 명사에 결합하고 있으므로 조사다. 그리고 ⑤의 '노력할 뿐이야'의 '뿐'은 앞말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그러나 'ㄴ'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된다'의 '만큼'은 '생각'이라는 명사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조사로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14. [출제의도] 어휘 찾기**

**[해설]**
- 한창 : 어떤 일이 왕성한 때, 아주 무르익은 때
- 한참 :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 앉히다 : '앉다'의 사동사로 '앉게 하다'
- 안치다 : 떡, 구이 등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음식이 되게 하다.
- 담그다 : 김치, 술, 장, 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
- 담다 :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현 대 시 -**

**(가) 백석, 「삼천포」**
**(나) 김현승, 「지각(知覺)」**
**(다) 정호승, 「구두 닦는 소년」**

**1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①의 경우 (가)는 시적 화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도 행복과 불행에 대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밝힌 작품이며,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③의 경우 (다)는 구두 닦는 소년의 모습을 관찰한 것으로서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경우도 행복과 불행에 대한 시적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을 뿐,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④의 경우 (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힘겨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의 경우도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가난을 '따뜻하다'라고 표현했으므로 힘겨운 삶의 모습에 대한 구체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의 경우 자연물은 나와 있으나, 이것이 화자가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가)는 시적 화자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주가 되고 있을 뿐이다. ②의 경우 (가)에서는 거리에 있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다)의 경우에는 구두 닦는 소년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6.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②는 '졸레졸레' 라는 의태어를 구사하여 현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데서, ③은 '오르고', '누우라니', '재릿재릿' 등의 표현에서 동일한 어휘와 음운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도야지', '벼곡간', '벼짚' 등의 시어에서 향토적 정감이 느껴지며, ⑤는 '말다툼 소리도 누우라니' 라는 표현이 청각의 시각화로서 공감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은 대조되는 소재를 배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조적으로 배치된 소재를 찾아볼 수도 없다. 정답은 ①이다.

**17. [출제의도] 시의 주제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도식은 '행복의 문', '생명의 숨결', '생명

의 바다' 등의 시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제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문은 양쪽에서 열려야 되며, 숨결은 들이쉬고 내어 쉬어야 하며, 바다도 밀물과 썰물이 공존한다. (나)의 시적 화자는 행복에도 감사하고, 불행에도 감사한다. 행복은 밖에서 오고, 불행은 안에서 온다. 즉 불행도 내일의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불행을 굳이 불행으로 생각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화자의 개성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문은 안과 밖 모두에서 열려야 하고 숨결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모두 필요하며,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는 행복과 불행이 모두 소중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다)에서 '구두'는 세속적 대상이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또한 '구두'는 생존의 수단이지만 아울러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구두 닦는 소년은 '구두'를 닦으며 '희망'을 닦고, 닦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별'은 원래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이지만, 이 시에서는 먼지 묻은 더러운 존재이기도 하고, 길바닥에 나뒹굴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별'은 '구두'를 닦듯이 닦여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다. 결국 이 시는 '구두닦이'라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별'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가치를 노래하면서 희망을 추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으며, 구두 닦는 행위도 단순히 개인적인 직업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 꿈을 대변하는 행위로 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9. **[출제의도] 표현 기법 적용하기**

**[해설]** 구조적 역설이란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작품 전반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이다. 이규보의 <경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고 맑은 거울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흐린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기 싫어하므로 오히려 흐린 거울을 좋아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맑은 거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이나 통념을 뛰어 넘은 것이며, 이것이 작품 전반의 내용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역설로 볼 수 있다. (나)를 보면 시적 화자는 '불행'에 감사한다. '불행'은 보통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겉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시적 화자는 불행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면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생각한다. 그래서 불행도 행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긴다. 정답은 ②이다.

**- 예술 제재 -**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팝아트'와 '옵아트'의 등장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 두 유파가 직물 무늬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팝아트'의 대표적 인물은 소개되고 있으나 '옵아트'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팝아트와 옵아트의 특성과 한계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팝아트와 옵아트의 등장 배경에 대한 언급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은 없으며,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인용도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2. **[출제의도] 중심 화제의 공통점 찾기**

**[해설]** '팝아트'는 '1950년대 후반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성과 엄숙성에 반대하여' 등장한 것이며 '옵아트'는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던 일반적인 미술이나 구성주의적 추상 미술'과는 다른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이 두 미술의 경향은 ③과 같이 '기존의 예술 경향을 탈피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①은 팝아트가 대중 문화의 시각 이미지를 끌어들이긴 하였으나 팝아트가 상업적 속성을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옵아트도 직물 무늬 디자인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있으나 옵아트가 상업적 속성을 의도성을 갖고 지지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오답이다. ②는 옵아트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시각'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④는 옵아트의 경우 내재적 의미를 추구했다고 하기보다는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했다고 했기에, 그리고 ⑤는 과학적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옵아트이지 팝아트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모두 오답이다. 정답은 ③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찾기**

**[해설]** 그림 ③은 '팝아트는 매스미디어와 대중 문화의 시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그림으로 팝아트 그림이다. 그림 ④는 팝아트 그림으로 '앤디 워홀이 실크스크린으로 찍은 캠벨 수프 깡통'이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림 ②와 ⑤는 '가장 단순한 선, 형태, 명도 대비, 색, 점들을 나란히 놓아서 눈이 어지러운 시각적 효과'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흐'의 작품인 그림 ①은 강렬한 색채를 통한 인상적 내용 위주로 그린 그림으로 시각적 착시나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은 아니다. 또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대중 문화의 시각 이미지도 나타나 있지도 않다. 정답은 ①이다.

**- 고전시가 / 수필 -**

**(가)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4**
**(나)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다)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24. **[출제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을 찾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해설]** (가)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만나지 못하는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다)는 필자가 어린 시절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아버지처럼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 것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5.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면서 감상하기**

**[해설]** (가)는 어버이와 이별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강과 산으로 돌아다니지만 결국 임의 소식을 접할 길이 묘연한 상황이다.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은 현실적인 여러 제약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을 만나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할 것이다. 따라서 ④와 같이 아직 임을 만나서는 안 되는 줄을 화자가 안다는 진술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해이다. 정답은 ④이다.

26.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 파악하기**

**[해설]** (가)의 '외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나)의 '빈 배'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뱃길을 알아보고자 하나 바람과 물결로 배를 띄울 수 없고 사공마저 없이 빈 배만 덩그마니 놓여있는 상황이다. 즉,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절망감만을 심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7. **[출제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해설]** (다)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중년의 필자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학교를 그만 두려는 필자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중년이 된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처럼 과거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작품의 정황으로 볼 때 잘못된 이해이며, 당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매정하게만 생각했다는 것도 잘못된 이해이다. '그 물음에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8. **[출제의도] 작품을 다른 장르로 전환하여 이해하기**

**[해설]** 아버지가 된 중년의 필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오버랩 기법을 통해서 장면을 드러내면 현재 필자의 장면을 과거와 대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시골 달밤의 서정적 정감도 흐르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나'의 성격도 자신감에 차 있고 의기양양한 모습이므로 ②, ③, ④는 타당한 방안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사려 깊게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인물 배역 설정도 적절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초기 사투리를 통해 다정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아들의 철없는 언행에는 일부러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투로 말함으로써 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역에게 일관된 어투의 주문은 작품의 사실적 내용과도 다르며, 작가의 의도도 살리지 못하므로 적절치 않다. 정답은 ①이다.

29. **[출제의도] 작품 속에 나타난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철없는 언행을 하는 아들에게 의미 있는 말로써 아들 스스로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말이다. 그 의미는 자기만이 최고인 양 자신감에 차서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 할 것 없다는 아들에게 바람부는 신작로에서 자전거 위에 서 있게 해봄으로써 세상살이가 자신의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언어 제재 -**

30. **[출제의도] 사실적 내용 확인하기**

**[해설]** 우리말은 다양한 발상에 따라서 대상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금기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돌려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표현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명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때의 명관은 반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말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 있다고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다. 또한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부른 예처럼 우리 조상들은 특정 대상에 가치를 부여해서 돌려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③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 논리적인 형식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했다고 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31. **[출제의도] 표현 방식 적용하기**

**[해설]** ㉠은 문맥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기, 즉 '비유'에서의 일종의 보조 관념을 말한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에서의 보조적 관념으로 끌어 들인 표현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얼굴을 '홍당무'로 ②는 몸을 '바위'에 빗대어 표현했다. ④는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고 있다. ⑤는 몹시 적은 월급을 '쥐꼬리만한 월급'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③은 비유가 아니라 단지 밤나무가 많은 곳을 '밤골'이라고 불렀다는 의미로 고유의 지명 명명법에 의한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2. **[출제의도] 적절한 표현 찾아보기**

**[해설]** 겸양의 격률은 '화자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 방법이 적용된 사례는 ②이다. ②는 자신의 정성을 '작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답변도 자신을 '변변찮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3. **[출제의도] 속담으로 표현해 보기**

**[해설]** ㉢에는 금기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불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즉, '천연두'를 말로 하면 그런 병에 걸릴 것을 생각해서 꺼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속담은 '말을 하게되면 말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②이다. ①은 '행동이나 실천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을, ③은 '말은 하면 할수록 보태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④는 '말이 많으면 살림도 안 된다.'는 표현이며, ⑤는 '마음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4. **[출제의도] 그림을 통해 우리 표현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내용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의 뜻을 '잔디가 아파요.'로 돌려 말하고 있다. 이는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구급차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를 대상에 투여한 내용도 아니며,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말하는 경우처럼 대상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표현도 아니다. 또한 청유의 뜻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며, 예의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정답은 ⑤이다.

**- 과학 제재 -**

35. **[출제의도]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기**

**[해설]** 본문에서 심해층대는 수심에 관계없이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으며, 해수의 80%가 심층해수임도 알 수 있다. 또한 해류의 순환은 오랜 세월 동안에 느리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네 번째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점차로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그린랜드 지역은 찬 공기와 빙하로 인해 해수면을 급격히 냉각시켜 해수의 밀도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①, ②, ③, ④는 오답이다. 그러나 네 번째 단락 상단에서 해수가 심해층대로 가라앉으면 그 자리를 카리브해의 열대성 바람에 의한 따뜻한 해류가 채운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36.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기**

**[해설]** 〔A〕의 해수 순환은 '해수의 하강 → 남극해 → 태평양 또는 인도

양 → 해수의 용승 → 북대서양' 순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7. **[출제의도] 원리의 총괄적 이해**

**[해설]** 해수 순환의 원리를 〈보기〉와 연관지어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①은 해수가 얼어서 빙하가 되므로 빙하는 염분의 농도를 진하게 하여 해수의 하강을 유도한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주므로 타당한 반응이다. ②는 해수의 염분 밀도가 높으면 해수가 하강하여 심층해수가 되는데 〈보기〉에서 심층 순환이 기후와 연관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은 적도의 해수는 따뜻하므로 고위도 지역(남반구, 북반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④는 남극해의 심층해수는 차가운데 이것이 적도로 흐르면서 뜨거운 적도의 해수를 식히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⑤는 지구의 기온이 원인이 되어 해수의 이동 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반응이다. 정답은 ⑤이다.

38. **[출제의도]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심층해수는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발생량이 많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현대 소설 -**

**[39-43] 이청준, 「그 가을의 내력」**

39. **[출제의도] 작품 창작 의도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사춘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즉,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춘기의 미묘한 심리를 개싸움을 매개로 하여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라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사춘기 무렵의 이성에 대한 야릇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람 사이의 인간적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0. **[출제의도]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 감상하기**

**[해설]** 〈보기〉는 감상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에서 석구는 금옥이를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개싸움을 걸어 상대를 괴롭히다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감정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에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 상대방에 대해 품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의 관점에서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은 ④이다. ①과 ②는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절대론적 관점, ③은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 상황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반영론적 관점, ⑤는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41. **[출제의도] 시점 바꾸어 쓰기의 효과 파악하기**

**[해설]** 〔A〕는 3인칭 시점으로 금옥의 행동을 바라보는 석구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나, 〈보기〉는 금옥이를 '나'로 바꾸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표현함으로써 〔A〕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금옥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인과 관계의 선명성이나 사건 전개상의 속도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또한 〈보기〉는 금옥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간 서로의 태도가 자세히 드러나지도 않았으므로 ①, ②, ④, ⑤는 오답이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반응을 한자 성어로 표현하기**

**[해설]** 금옥이는 석구의 친절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석구를 바라보기만 하므로, '대단히 고맙게 여기어 어찌할 줄 모른다'는 뜻의 감지덕지(感之德之)는 이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또한 매번 누렁이에게 당한 베스가 드디어 누렁이를 이긴 상황으로 볼 때, '뜻대로 되어 으쓱거리는 기상이 펄펄하다'는 뜻의 의기양양(意氣揚揚)한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누렁이와 베스의 싸움이 처음에는 서로의 실력을 가려내기 어려웠으므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의 백중지세(伯仲之勢)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개싸움에서 졌던 석구가 다시 개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한 번 패한 자가 힘을 돌이켜 전력을 다하여 다시 쳐들어 온다'는 뜻의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어울릴 수 있으며, 싸움에서 진 후 건너편 산기슭으로 도망가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는 누렁이는 '매우 두려워하여 조심한다'는 뜻의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3. **[출제의도] 배경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을 산골의 정적 속에 장끼 울음 소리가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장면이다. 두 사람 사이의 치열한 감정의 대립도 눈녹듯 잦아들고 석구는 금옥을 오히려 달래려고 애쓰는 마지막 장면을 접하면서 독자들은 순박한 두 남녀를 통해 따스한 감동을 느낄 것이다. 그런 감동을 배경 묘사를 통해 더욱 길게 끌고 있는 부분이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고전소설 -**

**[44 ~ 47]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44. **[출제의도] 작품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부분은 숙영낭자의 죽음과 신원에 관한 부분이다. 제시된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를 다시 정리하면 〈보기〉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을 보면 매월은 선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낭자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선군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 내어 매월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범인을 지목하여 알려주는 것은 파랑새이다. 따라서 선군이 아버지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는 점은 소설의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점과 등장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주로 사건이 전달된다는 점이다. 또한 '철석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랴'와 같은 작가의 주관적 판단 및 개입도 드러나고 있다. 파랑새가 범인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라든지, 옥비녀가 섬돌에 박히는 장면은 전기적 요소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소리계 소설처럼 낭송하기에 좋도록 문장이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46.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해설]** 숙영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더럽혀진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정절을 소중히 여기던 당시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악인인 매월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은 권선징악을 표방한 작가 의식의 반영이다. 한편 백상군은 며느리 숙영이 죽자마자 서둘러 임진사의 딸과 아들의 재혼을 주선하는데 이는 진상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로서는 옳은 처사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모습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낭자가 시아버지의 가혹한 추궁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낭자의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

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 대해 준 것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타고난 성품의 결과거나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7. **[출제의도] 제문의 내용 추리하기**

**[해설]** 선군이 숙영낭자를 위로하는 제문의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상황을 고려할 때, 제문의 내용에는 악인의 모함으로 죽게 된 낭자의 원통한 사연과 짝을 잃은 선군의 슬픈 심정, 그리고 낭자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애도가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낭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며 낭자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는 모습도 적절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는 사건 발단의 책임을 낭자에게 있음을 내포하므로 숙영낭자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선군의 제문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 기술 제재 -

48.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에 의하면 연결 프로그램이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보안에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①은 유추할 수 있다. ②는 첫 번째 문단에서 공인인증서 자체의 문제점으로도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④는 두 번째 문단의 메시지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⑤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내 컴퓨터 공간에 인터넷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결프로그램의 설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언급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49. **[출제의도] 관점의 차이 파악하기**

**[해설]** 〈보기〉의 관점은 인터넷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3자의 명의 도용과 같은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시문의 ㉠이 바로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②, ③, ⑤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든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위법 행위의 증가 예측 등은 제시문과 〈보기〉를 통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은 사용자의 약점을 노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④와 같은 반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50.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의 파악**

**[해설]** ㉡의 문맥적 의미는 '어떤 것이 나타나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①은 '짜거나 엮다', ②는 '경혈에 놓고 태우다', ③은 '인기를 얻다', ⑤는 '(자리를) 비우다'의 의미이다.

51. **[출제의도]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A〕의 과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에 접속 → 악성 스크립트 삽입 → 악성 스크립트 실행 → 보안 수준 낮춤 → 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개인 정보의 유출.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 사회 제재 -

52. **[출제의도] 사실적 내용 확인하기**

**[해설]** 제시문의 요지는 오늘날 현대 대중 문화의 소비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의미 생산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①은 맞는 내용이다. 베버는 소비보다는 근검과 절약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소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소비의 대중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촉진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지배층의 문화적 우월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지위를 얻으려고 하므로 상품의 질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①이다.

53. **[출제의도] 보기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하기**

**[해설]** 〈보기〉의 핵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문화가 보여주는 '상업주의적인 속성'이다. 소비를 자극하는 대중 문화에 빠져 결국에는 물신주의에 빠지고 마는 현대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중 문화에서 소비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⑤와 같이 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은 소비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보기〉의 관점이 소비로 인한 물신주의적 폐해이므로 적절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는 〈보기〉에 나타난 소비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며, ③은 소비가 지위를 만들어 간다고 본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한 것은 아니며, ④는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4. **[출제의도] 글을 읽고 감상 내용을 적용해 보기**

**[해설]** 제시문에서 언급한 정체성은 현대 사회에서 같은 계층이나 세대에 속한다는 동류 의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정체성이 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보기〉의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에게는 첨단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같은 세대임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이미지를 부여해 주는 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다. 즉, 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끊임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집단이 기업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 ㉯의 기성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이므로 젊은이에 비해 소비를 못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들도 설운도 음악을 통해 '설운도 세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이다. 나름대로의 소비를 하는 집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제시문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이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생산적 소비'의 의미는 바로 앞부분에 보면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의미를 생산하는 의미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는 생산과 관계되고, ⓑ는 금욕주의적인 성격에 해당하며, ⓒ는 본능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는 단순히 기계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는 문맥을 보면 대중 문화에 참가하여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 인문 제재 -

56.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다음, 완전한 존재인 자연을 인간이 본받아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유교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과 인간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는 요지를 표제와 부제에 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④는 부제가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으나 표제가 중심 내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57. [출제의도] 중심 화제의 내용 정리하기**

**[해설]** 이 글의 중심 화제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자연은 완전하며 참된 존재이며 인간의 모범이 되는 존재로 인간 생성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간은 완전하고 참된 존재인 자연을 본받고 좇아야 하는 존재로서 천지의 이와 기를 받아 생성된 자연의 소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삶의 태도와 비슷한 작품 찾기**

**[해설]** ㉢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①이다. ①은 산과 물이 자연 그대로이니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나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늙어가겠다는 내용이다. 즉 ①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에는 그리움의 감정을 뫼버들을 통해 임에게 보내는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③은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며, ④는 늦가을 농촌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는 태도는 없다. ⑤에는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간신배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59. [출제의도] 글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기**

**[해설]** 제시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인간이 본받아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 문명의 위기와 부작용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의 관점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와 같은 인간의 반성이 필요하다든지, ㉯의 인간 중심적 사상에 대한 비판적 대안 가능성이라든지, ㉰와 같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시사점과 같은 이해는 타당하다. 또한 ㉱는 천인합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이 곧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이므로 오늘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해 유교의 자연관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제시문 논지의 핵심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인데, 인간이 늘 그래왔듯이 자연의 질서를 재창조한다는 관점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발상이므로 제시문의 논지와도 배치된다. 또한 본문 내용에도 자연은 인간 생성의 모태이며 인간은 이 자연의 본성을 받들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으므로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제시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⑤이다.

**60. [출제의도] 어휘의 바꿔쓰기**

**[해설]** ⓑ '일컫다'의 이 글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여기다'이다. 그런데 '통용(通用)'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의 '비롯하다'는 '어떤 일이 시작하다'의 뜻으로 '연유(緣由)하다'와 대체할 수 있고, ⓒ의 '알다'는 '이해(理解)하다'와 문맥적으로 통하며, ⓓ의 '꾸리다'는 '영위(營爲)하다'와 바꾸어 써도 의미의 큰 차이는 없다. ⓔ의 '어긋나다'는 '서로 꼭 맞지 아니하다'의 뜻인데, '말이나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모순(矛盾)되다'와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